1998. 9. 15 창간

Vol. 214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20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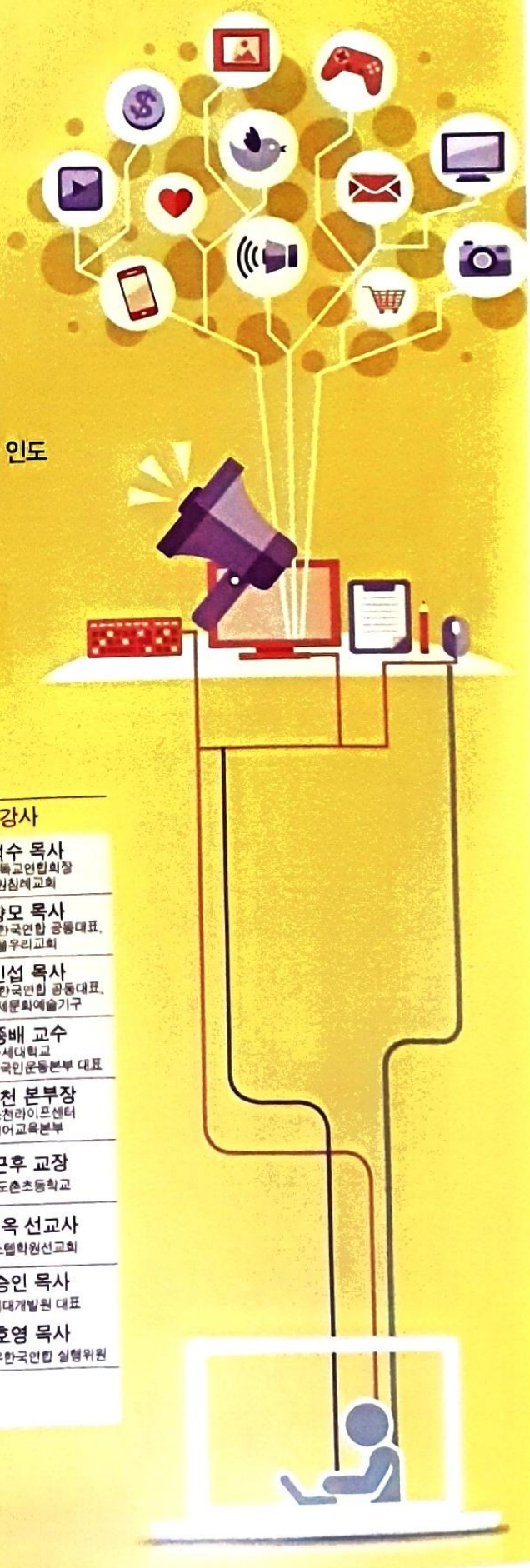


성시화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프로그램 소개
성시화2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강사소개
선교 임갈렙 선교사를 만나다
다음세대 청소년 전도학교 간증문
기관탐방 강원도청 기독신우회
인물 현숙한 믿음의 여인 허근옥 권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4/14 윈도우 지역세미나 › 4/14윈도우란 4~14세 연령층을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하며 그들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다음세대와 미디어 "선용방법 제시"



- 오늘날 미디어가 다음세대에 무엇인지? 그 유익과 폐해를 분별
- 다음세대가 미디어를 로마대로처럼 복음의 통로로 선용하도록 인도
- 다음세대 미디어 금식, 절제, 선용의 방법을 제시

2016. 10.5(수)

오후 1 ~ 5시 온누리교회

TIME	주제	강사
13:00 -13:30	환영사	차덕수 목사 춘천기독연합회장 강림침례교회
	격려사	노항모 목사 4/14윈도우한국연합 공동대표, 서울우리교회
	어젠다 제시 다음세대의 위기와 미디어 선용	김민섭 목사 4/14윈도우한국연합 공동대표, TCI국제문화예술기구
13:30 -14:10	[1강] 다음세대 미디어 문화의 문제점과 기독교적 대안	안종배 교수 한세대학교 클린컨텐츠국민운동본부 대표
14:10 -14:55	[2강] 스마트 미디어가 4/14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회, 가정의 대처방안	전종천 본부장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미디어교육본부
15:00 -15:30	[3강] 교장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본 4-14 세대의 위기와 영적 대안	송근후 교장 분당도촌초등학교
15:30 -16:00	[4강] 교사가 본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의 다음세대 대책	이미옥 선교사 세븐스텝학원선교회
16:10 -16:50	콘텐츠안내 교회가 활용가능한 콘텐츠 안내 (FOC OneHope 어린이 성경앱, 교회 교육비전교육원)	정승인 목사 다음세대개발원 대표 정호영 목사 4/14윈도우한국연합 실행위원
16:50 -17:00	기도 · 광고 · 폐회	

- 주최 : 4/14윈도우한국연합,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변혁한국
- 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대상 : 교역자, 선교사, 교사, 학부모, 다음세대 교육 관심자
- 참가 등록비 : 10,000원(교재,간식)

Cover Story



저높은 곳을 향하여

김용성 작가 I oil on canvas I 60.6 x 60.6 cm I 2014

가을이 오는 길목....

우리 크리스천은 인생의 여정에서 가을을 묵상한다.

예수님과 노인의 의미는 우리 삶의 한 단편이기도하다. 우리의 삶의 종점이 다가오는 즈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높은곳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10
Vol. 214







커버스토리	저높은 곳을 향하여	01
Editor's Note		03
10월 캘린더		04
사설	역사인식의 중요성	06
성시화 특집 1	2016년 춘천성시선교대회 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08
성시화 특집 2	2016년 춘천성시선교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0
통일	우리를 부요케 하러 오신 예수님	12
음악이야기	마르틴 루터	15
선교	임갈렙선교사를 만나다	16
쉼한편	주일 예배당	23
기획	우리 모두의 힘으로 성시매거진을 만들어 갑시다	24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26
기관탐방	강원도청 기독신우회	30
인물	현숙한 믿음의 여인 - 허근옥	34
설교	피종호 목사	39
건강이야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42
영화이야기 111	벤허	44
알려드려요		46
9월을 돌아보며		48
후원자명단		52

Editor's Note

일전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사십 여년 사역의 길을 달려오신 선교사님에게서 '복음' 혹은 '선교'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은 '만남' 을 강조하시며 복음 안에서 만난 지체들이 자주 만날 것을 권면하셨다. 만남에는 대화가 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정을 훌쩍 넘기고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며 작별을 했다. 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화에 빠져 대화하는 내용을 이해함으로 생각의 변화를 체험하며 대화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삭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남의 부재요 대화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정을 한 번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한 번 돌아보라. 대화가 사라지고 깊은 침묵만 감도는 가정, 대화가 없는 공동체는 적막함을 넘어 삭막함이 더 나아가서 서먹서먹함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군중 속에 외톨이로 내 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대화가 있는가? 만남은 있지만 가슴을 터놓고 만나는 진정한 형제애의 만남이 없고, 대화는 있지만 서로 공감이 없는 무미건조한 정보의 전달뿐이 아닌가. 전국가적, 전도시적 공동체성을 말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성도들이 만나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나 도시 안에 교회들이 만나는 연합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개인의 이익 혹은 개교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화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러한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한 공동체의 참모습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어떤 뜻과 목적에 의해 결합된 연합모임도 개인과 개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개인이기주의보다는 집단이기주의가 더 과격하며 파괴적이다.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러한 공동체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는 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고 말 것이다.

다시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싶다. 5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곳에 있던 교회와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곳을 떠나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는 현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곳에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가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을 섬기게 된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그가 사역하는 도시에서 이 선교사님 제안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20여개 남짓의 교회가 이제는 도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강단을 교류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보내주는 아름다운 연합이 움트고 있다고 한다. 진정한 연합,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은 나를 내려놓고 대화할 때가 아닐까 싶다.

편집장 최영조

2016 10

· 이달의 말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2장 12절

· 이달의 기도제목

2016년 춘천성시선교대회 주제인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62:10)"처럼 춘천의 모든 교회 목회자, 직분자, 성도들이 도시와 개인적 사명을 회복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도시변혁운동인 성시화운동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운동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확산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성시선교대회를 통해 춘천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실제적인 연합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성시선교대회가 되게 하소서. 이전에 없었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 춘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LORD'S DAY	MONDAY	TUESDAY
30	**31**	
2 • 기드온순방예배 11시, 평화동산교회 9시, 11시, 중앙성결교회	**3** • 오전 9:30, 영화상영 「신은 죽지 않았다 2」 춘천명동 CGV 3층 6관 • 오전 10:00, 근현대사세미나 순복음춘천교회 • 저녁 7:00, 목사장로기도회 온누리교회 • JDM 오전 10시 39주년 기념행사 온누리교회	**4** • 오전 10:00, 사모기도회 온누리교회 • 저녁 7:00, 목사장로기도회 온누리교회 • 예수전도단 ~7일 대학사역 가을캠프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동부장로교회 • JDM ~7일 요한계시록 사경회 • 어린이전도협회 오전 10시, 오후 7시 새소식반 강습회
9 • 기드온순방예배 2시, 광장감리교회	**10** • 쥬빌리 58차 춘천모임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1** • 어린이전도협회 오전 10시, 저녁 7시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 통일한마당 화요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16 • 기드온순방예배 9시, 11, 순복음춘천교회	**17** • IVF ~21일 전국간사수련회, 성주	**18** • 예수전도단 ~21일 대학사역자 컨퍼런스 • 춘천성시지도자모임 오전 7시, 옛날맛해장국
23 • 기드온순방예배 11시, 춘천침례교회	**24**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5** • 춘천시직장인선교연합회 오전 12시, 동부교회 • 통일한마당 화요기도모임 매주 오후 4시, 주향교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5 • 오후 1:00, 4/14원도우세미나 온누리교회 • 저녁 7:00, 저녁전도집회 온누리교회 • 오전 11:00, 편집회의 • IVF 강원지역 연합간사모임 원주 IVF회관 • IVF 캠퍼스 사역위원회 춘천IVF회관	**6** • 오후 10:00, 전도훈련 온누리교회 • 오후 1:00 도시전도및보고회 춘천시내, 온누리교회 • 저녁 7:00, 저녁전도집회 온누리교회 • IVF XLGM(연합예배) 한림대 • 기드온 춘천캠프 이사회 오전 11시	**7** • 오후 10:00, 전도훈련 2 온누리교회 • 오후 1:00 도시전도및보고회 춘천시내, 온누리교회 • 저녁 7:00 블레싱춘천 온누리교회 • 기드온 춘천캠프 금요조찬기도회 오전 7시	**8** • 오전 9:00 제2회 홀리바이크평화대행진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경기장 앞
12	**13**	**14** • IVF ~15일 IFES Governance Training 전국이사모임, 대전	**15**
19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정기총회 신성감리교회	**20**	**21**	**22** • 춘천 52기 아버지학교 개강 오후 5시, 온누리교회 • 탈북민 도시체험 오전 10시, 중앙성결교회
26	**27** • IVF 연합리더모임 춘천 IVF 회관	**28**	**29** • 21세기 시니어선교회 3주년 기념예배 오전 10시, 베드로선교센터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역사인식의 중요성

글 이연희목사 (아미교회)

한 사람의 역사관과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인식은 한 시대의 흐름을 결정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자들의 주장이나, 역사인식은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일이다.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정립하는 것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세대에 역사를 계승하는 책임을 담고 있기에 더욱 역사적 사실을 신중히 다루고, 주장해야 한다. 역사의 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마스 선교사(1839-1866) 순교 150주년을 맞아 열린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있었다. 지난 9월 5일에 한국기독교사연구소(소장 박용규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가 주최가 되어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에서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면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목사이자, 선교사라고 알고 있지 않은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생각한 그 역사적 사실을 더욱 견고히 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순교자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도전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포지움을 참석해서 발제자들의 주장과 견해를 듣던 중 일반 역사학자들의 주장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학자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순교가 아니라고 도전하고 반박하는 주장이 1985년대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대 부터 이만열 교수를 비롯한 국사학자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진보주의 학자들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올 5월에도 옥성득박사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순교자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무장한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입국하게 된 동기등이 선교사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왔다는 사실과 토마스선교사의 입국목적을 동일시하며, 성경보급을 통해 선교를 하고자 했던 토마스선교사의 방문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한국을 선교차 방문하기 위해 상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던 시대적 상황과 여러모로 준비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명백한대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대동강변에서 죽는 순간에도 성경을 던져서 성경을 통한 복음전파를 시도하고 그로인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삶이 얼마나 고귀한 순교자의 최후요, 선교사의 마지막인가? 감탄을 자아내기보다 침략적인 제너럴셔먼호의 입국과 함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관점과 역사인식이 이러한 중대한 주장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 역사의 바른 정립과 역사관은 모든 기독교인들과 한국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제너럴셔먼호 모형을 만들어놓고, 미제국주의 침략적인 행동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북한주민 사상교육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선교사가 영국인임에도 미제국주의 앞잡이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선교사를 순교자로 아는 남한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사상과 교육을 북한에서는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북한의 입장과 유사하게 토마스선교사를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제너럴셔먼호와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상선의 통역관으로만 평가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기독교 사학자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있다는 사실 앞에 역사인식과 관점의 차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의 차이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인식의 차이가 바른 역사정립과 역사계승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제국주의 침략자의 한 사람으로 치부하려는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토마스선교사의 죽음이 순교라는 것을 확고하게 정립하려는 시도야말로 역사인식과 역사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해야한다.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바른 역사관과 인식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는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심포지움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나 혼자만의 바른인식도 필요하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며, 역사인식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동참해야 한다.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시간/요일	10월3일 월요일	10월4일 화요일	10월5일 수요
오전 10시 - 오후 12시	**영화무료상영** 신은 죽지 않았다2 춘천명동CGV 3층6관 	**사모기도회** 윤정희사모 (강릉아산병원 원목사모) 사모와 어머니가 살아야 교회와 가정이 삽니다. 영적 회복과 사명 발견을 향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후 1시 - 오후 4시	**근현대사세미나** (김재동 목사) ※ 오전 10시 부터 순복음춘천교회		**4/14 윈도우세** 다음세대 지도자 다음세대의 가장 중요한 디어의 본질적 이해와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시간입니다.
저녁 7시 - 저녁 9시~	**목사장로기도회** (목회자연합회) 춘천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춘천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기도회** 윤정희사모 (강릉아산병원 원목사모) 사모와 어머니가 살아야 교회와 가정이 삽니다. 영적 회복과 사명 발견을 향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 집회** 전도는 어명 주강사 : 김두식 목 전도는 어명이라는 통해 전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수요일	10월6일 목요일	10월7일 금요일	10월8일 토요일
	전도훈련 **전도는 어명이다!** 주강사 : 김두식 목사  김두식 목사		**제2회 홀리바이크 평화대행진** 제2회 홀리바이크 평화대행진은 평화의 도시 춘천을 염원하면서 호반을 라이딩하는 만남과 섬김의 대행진입니다. ※ 오전 9시 ~12시 삼천동 송암 스포츠타운 인라인경기장 앞
세미나 세미나 한문제인 미 바른사용에 제시하는	**도시전도 및 보고회** 우리의 사명인 춘천성시화는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각 교회 전도대원의 훈련과 실전 및 보고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이다! 사 주제로 갖는 이번 집회를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는 시간입니다.	 김두식 목사	**블레싱 춘천** (이수형 목사) 모든 세대(어린이, 청소년, 청년선교단체, 직장선교연합회가 연합하여 함께 춘천과 이 땅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미술 · 영상공모전** 성시화운동의 세대계승을 위해 다음세대들이 성경과 선교, 통일을 주제로 미술과 영상작품으로 동참합니다.



주 강사

김두식목사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전도/선교/영어 담당 겸임교수

저서: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밥이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한다.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관심 없으면서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한다. 한참 잘못되었다.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다. 전도 안 해도 오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마교회처럼 망하고 만다. 성도들이 전도하여 받을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는 아주 이상한 교회에서 전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르심에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전파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지 못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 갈 수 있다.

성경은 변명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알려준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전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전파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16)

성경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이라는 원문의 뜻이 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다. 성경은 복음전도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뉴스〉에서 발췌



근현대사 세미나 강사

김재동 목사

하늘교회 담임, 에스더기도운동 이사, WEC국제선교동원본부 이사, 나라사랑후원회 공동대표

오늘날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왜곡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역사왜곡이다. 건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국일조차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어느 나라든 역사관이 잘못되면 국가관이 비뚤어지게 되어 있다. 잘못된 역사관으로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훼손되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론은 분열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내분 등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교회사만을 배우기 때문에 일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교회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까지 왔기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회 강사

윤정희 사모

강릉아산병원 원목사모

저서: 하나님 땡큐

윤정희 사모는 남편 김상훈 목사(강릉아산병원 원목)와 23년의 결혼생활 동안 10명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열 남매에게 특별한 사연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을 입양한 것이다. "부모에게 버려진 것이 아이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공개입양 가정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릴 거 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 한 아이라도 더 입양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윤정희사모는 단 한 번도 입양아를 미리 만나보고 '선택'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얼굴이 못 났냐 잘났냐는 이들의 가족이 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낳고 싶은 아이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내치지 않잖아요. " 똑 같은거에요"



우리를 부요케 하러 오신 예수님 고후5:20-6:2

이무열 목사 (마중물, 김포예수마음교회)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57차 춘천모임 (9월 12일, 주향교회) 강의를 정리합니다.

재)마중물을 세우게 된 계기는 부교역자시절 중등부 2학년 학생이 학교 내 학생들에게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내 기도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해결되는 것을 본 교사들이 합류하면서 모임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포 내 하나원에서 나오는 탈북민의 정착도우미로 매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사들이 함께 섬기겠다고 나서면서 예배를 드리며 모임이 생기게 되면서 통일한국의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어 생수를 끌어 올려 북한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비전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중물에서는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꿈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갈 수 없는 것을 보고 기도하다가, 학생들 10명을 북한에 있는 부모 생각하면서 주말에 가정처럼 그리스도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농가주택을 구하여 함께 살

"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 고린도후서 5장 20- 6장 2절

"

면서, 금토일 마중물 주말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중물학교는 현재 교장 퇴임하신 선생님과 크리스천 선생님이 교육을 책임져주시고 계십니다. 학교 소문을 들은 여러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학생들은 악기도 배우며 밴드 팀도 구성해서 공연도 하고, 고아원 방문, 연탄 배달 등 봉사도 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남한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자퇴나 퇴학당한 학생들과 김포 고려인 마을의 외국 노동자 자녀로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 위기 가정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가르쳐 통일한국에 귀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단체장들을 설득해서 북한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세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북한이 개방되거나 통일이 되면 어떤 분야의 준비를 해야 할까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NGO 단체를 운영하는 사역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정이 풍부한 선교회 후원을 받아 7년간 북한사역에 빵공장 김공장 등 여러 공장을 차려 도왔고, 탈북인도 여러 방법으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는 없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한 푼을 구한 앉은뱅이를 향한 긍휼함으로 많은 단체들이 구제사역으로 북한사역과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제사역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닙니다. 구제 사역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지근성으로 살고 있는 앉은뱅이에게 내게는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멋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잘 증거하고 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랫동안 묶였던 결박이 풀려, 해방되고 가난 질병 사망으로부터 진리로 자유를 얻어

축복의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북한선교를 시작할 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중물의 모토로 삼고 사역의 영역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분이신데 가난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총체적인 가난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경제적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정서적 가난입니다. 자살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고,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더 심각합니다. 탈북민들도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난은 영적가난입니다. 남북한 심각한 영적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참된 사랑의 왜곡과 타락 그리고 주체사상 우상숭배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가난입니다. 북한은 각종 질병이나 영양실조, 홍수 핵실험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굶주림에 신체적 가난을 겪고 있어 영양실조와 온갖 질병에 키도 작습니다. 남한은 현대병인 성인병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가난은 지적 가난입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 등 획일화된 교육으로 호기심 창조성이 부족한 지적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은 국정교과서 뿐 아니라 진화론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져야 하는데 60%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물리적 가난, 환경적 가난들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총체적 가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가난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영역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 어린이, 북한 사람은 복음을 접하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단절로 인한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난의 영역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각자 주신 은사들에 맞게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개방에 대비한 준비가 잘 되려면, 이와 같이 사람들을 키워 준비시키며, 이곳에 온 탈북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이 친구 되심처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통일은 앞당겨 질 것입니다.

글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제법 가을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들판의 노랗게 익은 벼들과 야트막한 산들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낙엽들이 풍요로운 가을의 풍경과 향취를 더해줍니다. 10월은 봄내의 성시축전과 종교개혁의 의미있는 달이기에 음악을 사랑했던 개혁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어울릴 것 같네요. 세상을 떠나기 한 해전인 1545년에 루터는 그의 〈자서전적 단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한편, 그해 (1519년) 동안에 나는 이미 새롭게 시편을 해석하는 일에 돌아와 있었다. 〈중략〉 나는 확실히 로마서에 있는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때까지 내 길을 막고 있던 것은 내 심장 주위의 차가운 피가 아니라 1장(17절)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한 단어였다. …"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성경〈SOLA SCRIPTURA!〉..' 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고심했었던 그에게 신학과 함께 음악은 깊은 영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교회 음악이었던 〈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안 챈트〉, 성가대의 전유물이었던 〈영광송:DOXOLOGIA〉으로부터 예배에 참석한 회중의 코랄 부분이 없었는데 그는 성도들이 함께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힘찬 깃발처럼 높이 들려 불려졌던 주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대표적인 곡입니다.

"…음악은 나에게 자주 새 힘을 주고, 나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라고 고백한 그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파이프 오르간도 악마적 악기라고 거부했던 시절에 교회음악으로 루터교는 후에 바하 (J. S. BACH)라는 위대한 믿음의 음악가의 손길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작센 지방 출신이었던 루터가 그 성에서 지내는 동안 궁정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의 초상화는 잘 소개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에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의 생가와 사역지였던 작센 지방과 비텐베르그 성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몇해전부터 독일 정부는 대대적인 단장을 해왔는데, 기억과 회상의 장소와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어가야 할 개혁정신들을 개혁교회들은 전통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의 교리의 근간을 흔드는 신학조류로 인하여 한국교계를 어지럽히는 신학논쟁은 다시 한번 루터와 함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왜곡시키는 사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모쪼록 현명한 성시 가족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음생활 하시길 소원하면서… 한가위를 지나 풍요한 가을의 한 가운데서 샬롬을 전합니다 …봄내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서른 한번째 음악이야기였습니다.

글 김금찬 선교사 (JDM)



농인들에게 꿈을 심어 주다

2천만 중국 농인들에게 복음을!
임갈렙선교사를 만나다

중국의 2천만 농인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독신 여선교사 임갈렙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암투병으로 보낸 1년 2개월의 안식년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이 회복되어 선교지로 돌아가는 갈렙선교사님의 20여년의 선교행전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의 비젼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Q 먼저 안식년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선교지로 돌아가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안식년 기간과 안식년을 갖게 되신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춘천은 제가 머물면서 고향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약 1년 2개월 간 머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 말기의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위해 춘천에 와서 권태환장로님과 유명애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쉼과 기도의 집 예예동산'에서 머물며 쉼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 한국 육주연부부 천연비누 기술 배움
2. 농인 취업 일자리 아가페 식당
3. 수화공연으로 감사드림

1


2


3


함께 보내며 삶을 나눠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이 들어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춘천에 와서 사랑을 베풀어주신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Q 안식년 기간 동안 새롭게 발견하신 은혜가 있다면 들려주시겠어요?

A 안식년동안 하나님께서 깊은 안식과 친밀한 관계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역을 앞세우고, 우선하여 달렸는데 투병기간 동안 하나님 보다 내가 앞서게 된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달려다닌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 중심으로 가다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 뜻을 이루고, 내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려고 애쓰다보니 체력이 소모되고, 지쳐 쓰러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어야하는 자신을 발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선교사님께서 안식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기억되는 성경말씀이 있으신가요?

A 하나님께서 저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셨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한 훈련을 거듭 할수록 영적인 배고픔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요? 저는 안식년이 거의 끝나 가지만 매일 아침 그리고 식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사모함대로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안식년기간에 주님께서 중국복음성가중 "안식"이라는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안식, 평안의 마음이 내게 있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네. 풍랑, 내영이 더욱더 견고 하네 내 옆에 계신 당신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네.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여전히 당신을 경배하네, 주님이 나와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시네, 소망이 가득하네, 내 일생 당신을 경배하네, 생명가운데 당신의 흔적이 가득하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가페사역을 통해 2천 만의 농인들을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Q 선교사님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저는 중국의 농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농인들은 언어와 청각의 이중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농인 인구가 2천 만 입니다. 2천 만의 농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수어를 가르치며, 장애로 인해 자립하기 어려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화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식당경영'을 통한 자립도를 높이는 사역을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화연구센터 건립'은 미국에 유학가서 도전을 받고 비젼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미국의 워싱턴DC에 있는 농인대학교를 진학하여 2년 만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농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농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인대학교는 총장까지 모든 직원이 농인입니다. 모든 학교 업무를 농인들이 합니다. 수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화연구센터 건립은 농인대학교를 설립하는 비젼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연비누는 수익 마련과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식당경영은 가장 생존과 관계된 사업으로 식당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농인들의 공동체생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선교사님이 중국인 농인들을 섬기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A 저는 한국에서 출생한 중국인입니다. 한국화교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서 사범대학교와 농인교육학, 특수교육과을 졸업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신학교도 졸업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중국복음선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농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고,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들을 소매치기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어가 너무 아름답고, 농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수많은 농인들이 복음을 듣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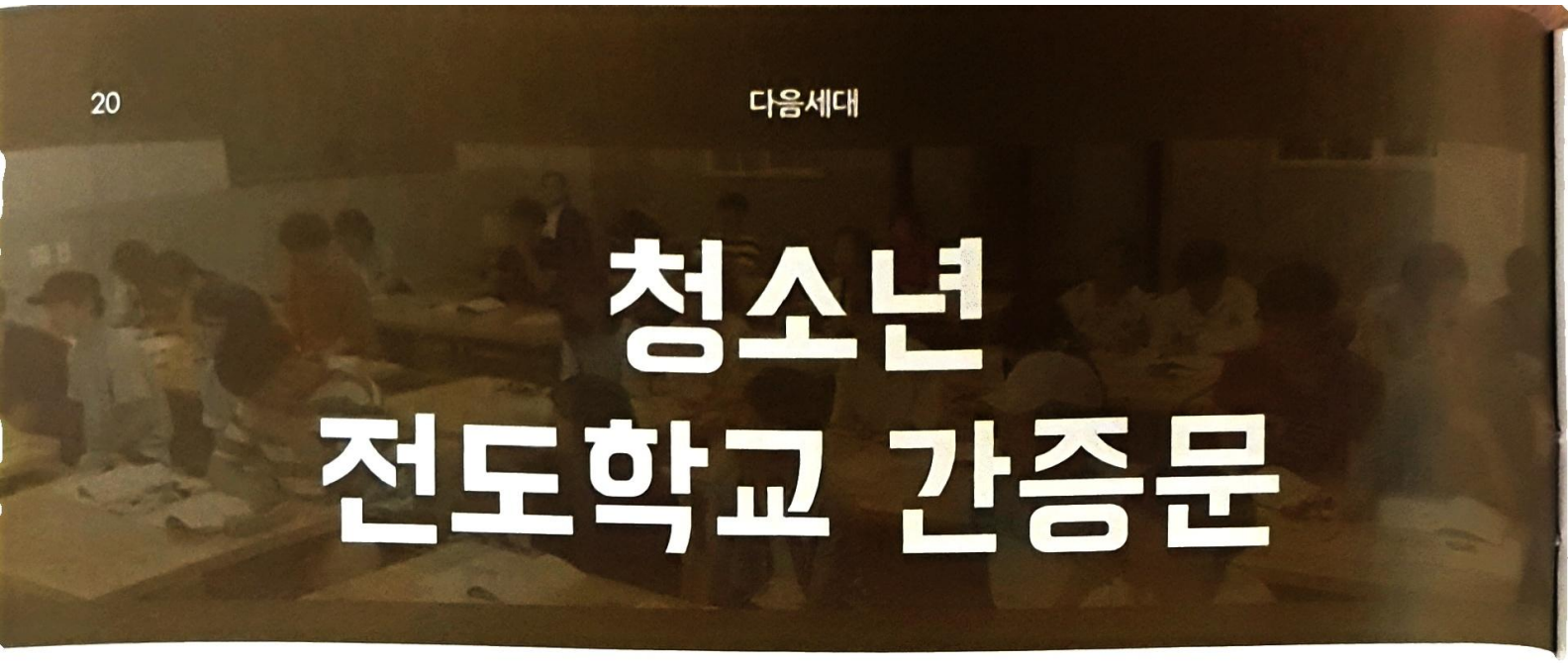
Q 농인 선교사역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A 중국 농인 선교사역이 20년이 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8년 동안은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에 들어가 한 달간 기차를 타고 순회하며 농인들을 만났습니다. 혼자서 광활한 중국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농인들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70시간을 탄 적도 있습니다. 기차가 사막지역을 지날 때 모래바람이 불면 기차가 가지 못하고 바람이 잔잔해 질 때까지 몇 시간이라도 서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 부터는 중국에 들어가서 농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농인들을 위해 수어를 가르치며, 수화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그들의 재활을 돕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페선교회'를 설립하여 한국과 Y국 H국, A국의 협력과 후원을 통하여 농인선교를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섬겨주실 후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Q 선교지로 돌아가시면서 부탁하며, 함께 중보해야 할 기도제목을 나눠주시겠어요?

1. 아가페에 주님을 사랑하고 농인을 사랑하는 수화통역사를 예비해주시기를
2. 아가페 킹덤비지니스(식당과 비누공방)를 축복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3. 갈렙선교사님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분별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4. 농인사역자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5. 선교지의 모든 스텝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주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취재 이연희목사 (아미교회)



청소년 전도학교 간증문

전도훈련 소감문 1
오준영(춘천기계공고 3, 주향교회)

저는 이번 전도훈련 LTC 초급단계를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아직은 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학생으로서의 학교와 가정에서 주시는 사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이것을 친구들에게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이번 전도 훈련에서 4영리를 배움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과 나를 통하여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쉽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면서 다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을 마지막 날에 전도를 나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말도 붙이기 어렵고 시작하기도 전에 민망함이 저를 덮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을 계속 빙빙 돌다가 마음을 먹고 파트너인 친구와 함께 홀로 앉아 계신 한 아주머니께 갔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 친구가 4영리를 전하고 저는 옆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흥미롭게 친구의 전하는 사영리를 들어주시며 말씀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방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점점 이상한 질문으로 따지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우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배운 대로 말씀 드렸지만 그분은 계속 물고 늘어지시며 저희에게 역으로 어떠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들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대답을 하려고 해도 틈을 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되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여호와의 증인이셨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와서 시간이 다 돼서 가야한다고 그분과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말 나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막힘없이 전도 할 수 있도록 사영리를 더욱 확실히 익혀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배웠던 강의들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들을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전도훈련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마음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받음으로써 제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같고 영적으로도 성장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전도교육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전도훈련을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훈련 소감문 3

최에스더(고3 홈스쿨, 서로사랑교회)

모태신앙이라서 복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또래 중에서는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예전부터 계속 전도에는 자신이 없었다. 전도를 아는 사람에게 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는 날이 되면 초등부 아이들을 앞세우거나 전도지만 빨리 나눠주고, 시간을 때우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게 심각한지 몰랐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방법도 알지 못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은사야라며 합리화하는 시간들이 많았다.

그러다 사모님께서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사영리 전도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원래 있던 청소년 모임 대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원래 모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게 되었다.

사실 예전에 사영리를 접해본 적이 있어서 내용이 길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기는 어렵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하면서도 편견을 깨지 못했는데 2주차부터 약간의 마음의 깨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영리의 내용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다. 일단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 복음이란 것을 설명할 때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장황하게 설명했고 그러면서도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놓쳤는데 글자로 적힌 사영리 책을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실한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두려운 것과 사람이 듣기 힘들어 할 것이다 라는 나의 판단 때문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괴롭게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많아 마음이 많이 두렵다. 하지만 이번 전도 훈련을 통해 나 스스로도 복음을 많이 확정시키고 전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준비된 영혼에게 내가 다가갈 차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것 같다. 전도훈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전도의 생각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전도훈련 소감문 2
이성열(강원고 1학년, 주향교회)

저는 이번 에벤에셀 전도훈련을 통해 느낀 점을 이 소감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은 성령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계속 믿어왔지만 왜 성령충만을 받아야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가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었으나 그냥 무시한 채 계속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훈련에 대해 듣게 되었고 별다른 큰 기대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날, 저는 사영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저는 말문이 막힘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령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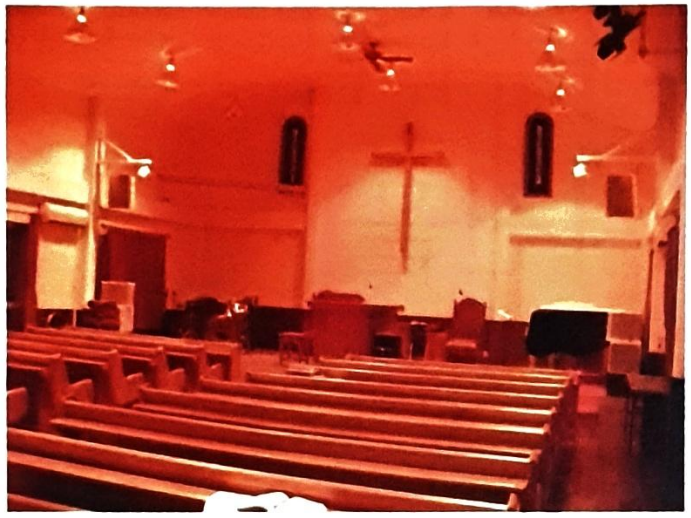
저는 그 말을 읽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어쩌면 나는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서 한순간이라도 주인이 되어 살았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에는 성령충만 받는 법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지배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성령님께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전도하러 공지천으로 나갔습니다. 전도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말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씨는 덥고 말을 못하는 저 자신이 스스로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밖에서는 사영리를 못 전해 봤지만 기회가 있을 때 친구에게는 전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제가 변화된 것이라면 영혼의 호흡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쉼으로써 내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음에 감사하며 들이쉼으로 믿음으로 성령충만을 구하고 제 삶을 성령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실천하며 매일매일 성령충만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는 일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전도하는데 더 많이 힘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았던 시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셔서 즐겁게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당

조희선(시인)

여기 빈자리
참 부산하게도 앉았다들 떠난 자리
당신은
침묵으로
고요로 이제야 임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할 자리
그러나 모두들 바빠서
입은 옷들 그대로 잠시 머물다 가버린 자리

이렇게 당신의 주일은
참 쓸쓸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성시매거진을 만들어 갑시다 !!

이번 달 15일이면 성시매거진이 창간된 지 벌써 17주년이 됩니다. 독자님들 중에는 매월 여러분 손에 들려지는 성시매거진이 별 것 아니라 생각하실지 몰라도, 십년이상 함께 했던 제게는 매 달 매 달 이 책자를 받을 때마다 '또 기적이 일어났다' 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를 비롯한 편집위원 대부분이 잘해서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 보지만, 소명에 코가 꿰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시매거진을 과소평가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약이 되어 능력도 안 되는 힘을 써보게 하지만, 반면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해주시는 독자 분들의 칭찬이 저희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저희 성시매거진은 명실상부 춘천성시화의 잉태과정과 성장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산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성시매거진이 춘천의 모든 시민들의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십대 초반에 이 일에 동역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삼십대와 사십대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이 바톤을 받아서 더 힘차게 뛰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시매거진이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급선무입니다. 점점 줄고 있는 광고수입과 맞물려 후원금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부족을 줄이고자 7,8월호를 합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넉넉한데 인적 자원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한다는 이야

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도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재정적인 후원이 열악하여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장으로서 이 사역에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10월 첫 주를 성시주간으로 정하시고 성시화를 위한 헌금을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춘천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시화에 대한 꿈을 함께 꾸기 위함입니다. 물질이 들어간 곳에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단의 벽을 넘어서 각 교회의 갖가지 상황을 넘어서 성시주간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명으로부터 수 천 명에 이르기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 이끌릴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개체 교회의 부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정기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시 매거진은 전에는 4천부를 현재는 3천부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혹은 우편으로 각 교회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넉넉한 부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교인들에게 한권씩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예배당 한 켠에 쌓여져 독자를 만나지 못한 채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성시매거진은 현재 무료로 받으실 수 있지만 나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정기구독자로 헌신하여 주십시오. 년 3만원이나 5만원 회원이 되시면 매달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1권 혹은 2권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쇄 및 우편비용을 제외하고 년간 만원 정도를 후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런 정기구독자가 천 명만 세워진다면 매월 100만원 정도의 선교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시매거진의 광고란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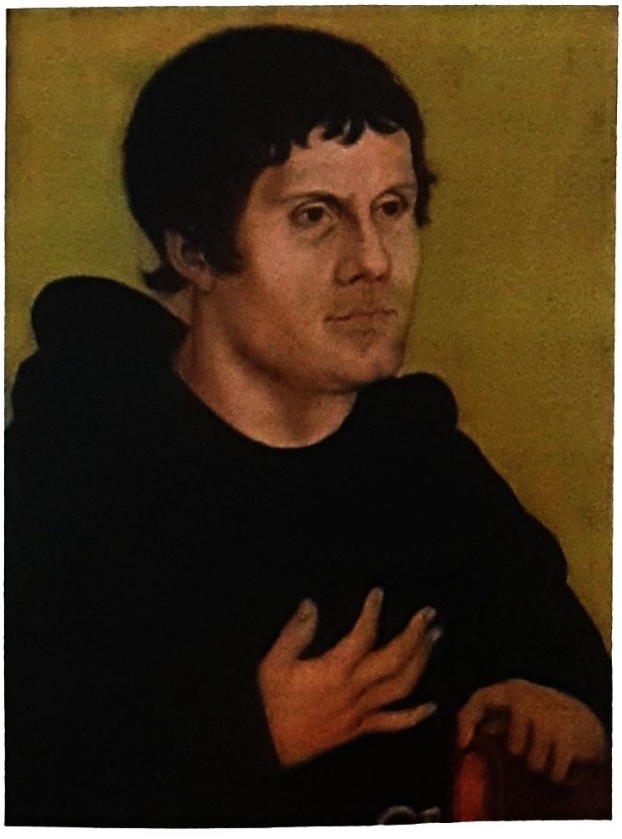
각 교회가 교회의 행사를 알리고 싶으시다면 매달 지정된 광고란을 받아서 교회 소개 및 행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기업을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5만원 10만원 정도면 광고도 하시면서 성시매거진의 사역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업에서 협력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성시매거진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재정적인 부탁만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후원이 심각하며 시급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 편집장 최영조 목사

루터의 종교개혁

글 김현배 목사 (베를린 비전교회)



▲ 마르틴 루터

비텐베르크 시교회 설교

루터는 몇 년 동안 라틴어 성경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었다. 루터는 수도사이자, 설교가로,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3가지 직책을 수행하였다. 루터는 비텐베르크대학교의 성경 교수로 활동하면서 1517년까지 비텐베르크 시교회(Wittenberg Stadt Kirche)에서 사제로서 목회사역도 하였다.

당시 대학과 수도원의 전통적인 언어는 라틴어였고, 도시민의 언어는 독일어였다. 그 때문에 루터는 독일어로 설교했는데 이 교회는 독일어로 설교한 최초의 개신교회가 되었다. 세인트 메리 교회(St Mary Church)라고도 불리는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루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설교했다.



▲ 비텐베르크 시교회

목회자로서의 루터는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통해 신자들이 성경 진리를 잘 이해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떼 즉 신자들의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심방도 열심히 했다. 이러한 루터의 신학적 및 목회적 관심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 1517년 10월 31일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던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와 성경의 새로운 계시의 빛이 루터에게 비취어지자 그는 곧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보게 되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온갖 위선을 깨달은 루터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어두움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고자 결심하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가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1517년 10월 31일, 이른 아침에 긴 사제복을 입은 루터가 어디론가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 성교회 (Wittenberg Schloss Kirche)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 비텐베르크 성교회

대략 낮 12시가 되기 전, 루터는 가지고 온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쳐 들고서 라틴어로 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못으로 박았다. 지금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어 못으로 박을 수 없지만, 그 당시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서 못으로 박을 수 있었다. 이 95개조 반박문 문서는 공개 토론을 위한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 신학적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95개조 논제에 대해 아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런 토론도 없었다. 비텐베르크의 교수와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95개조 반박문이 공개 된지 2주 만에 복사되고 번역되어, 전 독일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혜성같이 등장한 금속활자 인쇄술로 인해 4주 만에 전 유럽전역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마치 갑자기 핵폭탄이 터져 버린 것처럼 로마 교황청을 향해 종교개혁이라는 큰 폭탄이

터지고 말았다. 유럽과 세계사를 진동시킨 역사적인 대사건으로서 그 중심인물은 1483년에 태어난 독일 사람 젊은 마르틴 루터이다.

루터는 중세말의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갱신하고자 했다. 루터와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95개조 논제의 핵심 내용루터는 말씀의 진리를 위한 증거에 매우 충실했기에 교회에서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95개조 논제를 내걸고서 공개 토론하자는 반박문 내용의 핵심은면죄부(indulgentia) 판매이다. 면죄부 사건은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죄책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면죄부에 대해 루터는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반대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하여 막대한 공사비를 필요로 할 때, 그는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강요했다. 판매 책임자인 도미니크 교단의 탁발수도사 요하네스 테첼(Johann Tetzel, 1465-1519)은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져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 간다' 고 하였다.

이것은 완전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십지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비성경적이고, 구원에 아무



▲ 면죄부 헌금함

효과가 없는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고 가르쳐 왔는데, 가톨릭교회는 죄를 범한 인간이 신부에게 죄를 고함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고해성사를 주장한다.

또한 교황은 예수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이기에 절대 오류가 없다고 한다. 이것이 교황무오설이다. 또 성체숭배 사상이 있다. 성찬식 할 때 성도들이 받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화체설이라고 한다. 화체설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한대로 영적으로 임재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다. 1984년 5월 교황 바오로 2세는 한국 방문 중에 103위의 성인 시성식을 행하였고, 2014년 1월 프란체스코 교황 방문 때는 124명의 시복미사를 거행했다.

하지만 루터는 과도한 성인숭배를 맹렬하게 비판



▲ 면죄부



▲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못박고 있는 루터

했다. 그리고 성상숭배 사상도 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성인들, 교황들의 형상 등을 만들어 놓고서 그 형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성상 숭배인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성상들을 다 부셔버렸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아무 형상이 없고 깨끗하다.

또한 십자가 숭배 사상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을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정이나 성단, 교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병원에 달아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이다.

마리아 숭배 사상도 있다.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 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천주교회에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다.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 그림에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성화숭배사상이 있다.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그 근본이 잘못된 성경관에 기인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말씀도 좋지만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구원관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루터는 이러한 부패와 맞서 싸우게 되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이 면죄부 비판에서 출발하여 중세 제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루터는 작은 촛불을 켰는데, 그것은 그의 원래 의도를 훨씬 넘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라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1517년 10월 31일을 개신교 설립일로 기념한다. 금년 10월 31일은 루터 종교개혁 498년을 맞이하게 되며, 2017년에는 역사적인 500주년이 된다.



▲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루터 종교개혁 497주년기념 예배 모습

강원도청기독신우회

지난 9월 5일(월)에 강원도청기독교선교회, 강원도의회기독신우회가 주관을 하고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가 후원하여 강원도 만찬기도회가 열렸다. 이에 강원도 만찬기도회를 주관한 강원도청기독교선교회를 찾아 그 역사와 사역을 들어보았다.



Q 강원도청기독선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언제 모이며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A 1990년 6월 27일에 창립해서 한 달에 한번,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정기모임이 있고, 소양성결교회 찬미의 공간에서 10~20여명이 모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엄기홍목사님(그말씀교회)이 지도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평소 모임에서는 선교 회원들의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짧은 메시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기모임 예배 후에는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의 정기모임이 동부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오모임을 하는데, 그 때에 함께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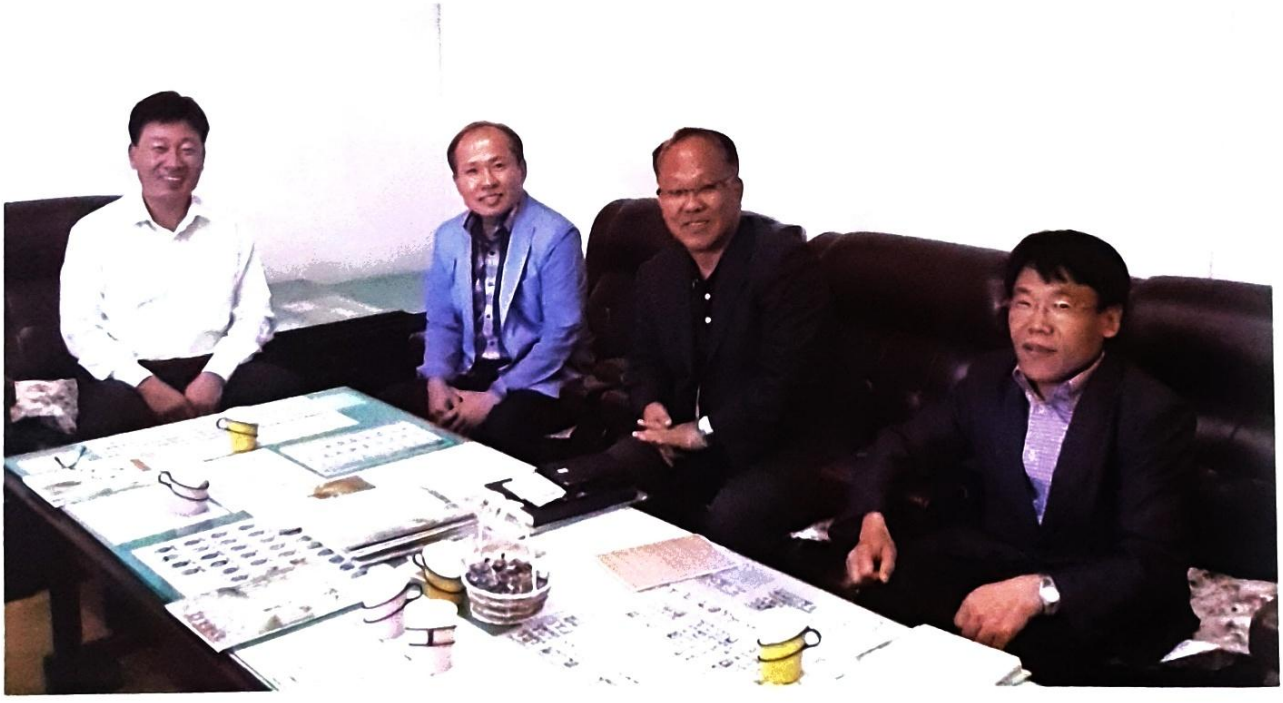
Q 이번에 어떻게 만찬기도회를 하시게 되었나요?

A **조인묵도청선교회장** 하반기 의회가 9월에 열리는데 강원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점검하는고, 사무감사도 합니다. 예산도 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강원도청과 강원도 의회 그리고 교육청 등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이 기도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찬기도회를 했었는데 늘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상을 전환해서 좀 더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보니 만찬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외로 도청직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30명이상이 참여를 했으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만찬기도회도 참 좋구나 하는 의견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김양수도청선교회 부회장 이번에 만찬기도회를 기획하면서 강원CBS 방송선교를 위해서 그 날의 헌금을 전액 후원하게 되었는데, 강원도 방송선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강원도 선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창호도청선교회 고문 처음에는 만찬기도회가 잘 될까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직장선교연합회에 협조를 구했는데 특송과 안내도 해주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정말 연합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자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청선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하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제로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는 10이 되었습니다.

한지 모릅니다. 늘 동부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담임목사님을 뵙지 못했는데 이번에 김한호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장선교연합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오원일장로님(도의회회장, 도의회기독교신우회장)이 동해에서 풍어제 얘기도 나누시면서 간증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이렇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왕표도청선교회 총무 이번 만찬기도회가 부회장님이 통이 크셔서 판이 커졌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강원일보 회장님이 연합 찬양단도 함께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

Q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A **조인묵도청선교회장** 크리스천들이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며 몸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선교회가 작지만 동료

들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뭔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탄배달도 하고, 소양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독거노인도 방문하여 섬기고, 암 투병하는 동료를 작게나마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만이 아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찬기도회도 연합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는 못해도 한 두 번이라도 계속 이런 만찬기도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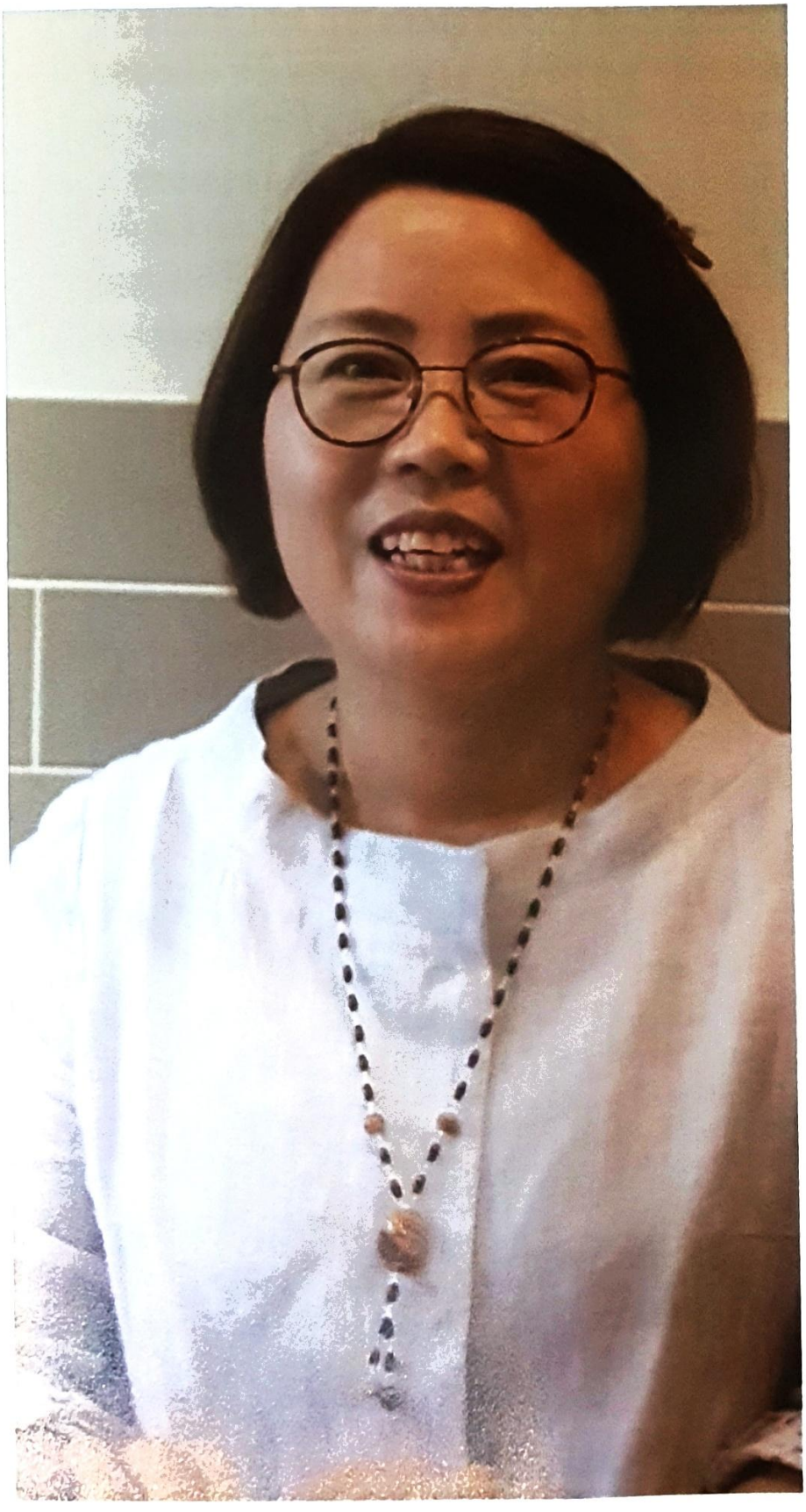
김양수도청선교회 부회장 조인묵회장님은 서울에 계시면서 전국공직자선교연합회에 총무도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의 공직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연합모임을 나는데, 강원도에서는 없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강원도공직자선교회 연합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8개 시군의 공직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강원도민의 행복,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 대회를 2~3월 중에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인묵도청선교회장 제가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바쁠 때에 승진을 시켜주셨습니다.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동해로 발령이 나서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내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도청으로 와야 하는데, 발령이 난지 6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간절히 기도해 준 덕분에 도청에 오게 되어 선교회장을 3년째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회장단들이 고민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도청에 국장으로 오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기도하니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보니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Q 도청선교회의 기도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A 예전에 중보기도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긴박상황에 있는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 일반병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전도도 하고, 치유도 받아서 은혜가 컸습니다. 이런 중보기도모임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강원도공직자선교회 연합대회가 잘 준비되어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이병철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현숙한 믿음의 여인

나눔교회 허근옥권사

허근옥권사는
우리 소아과 이병일원장의 아내이자,
나눔교회(피종호 목사) 권사입니다.
시부모님을 공경하여 잘 모시고,
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남편에게는 사랑받고,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현숙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춘천여고를 다닐 때에는 포교당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92년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서는 '구원' 이란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남편을 주님과 같이 섬기라!' 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깐 남편이 교회에 계속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하하하~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도 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둘이 있으니깐 교회에 오기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의 첫 발을 대디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후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버스와 충돌하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벌금형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일을 계기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결혼 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문의 변화을 일으키셨다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해서 보니 시아버님이 알콜 중독이셨어요. 시아버님이 술을 마시면 밤새 잠을 안 재우세요.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보니 처음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파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죽은 사람은 없고 다 불평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시아버님의 흉을 보거나 불평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남편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 학교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술을 마시고 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많았어요. 남편이 아버님에 대한 미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집안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시아버님이 갖고 계신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드시고 주정을 하시는 것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당신이 잘 되길 바라면서 당신보다 당신을 더 걱정해서 술을 드시고 그러시는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장점을 20개 정도는 찾아서 남편에게 자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아버님은 배 다른 동생을 낳지 않았다. 술을 마셨지만 도박은 하지 않으셨다. 또 술을 마시되, 비싼 양주를 드시지 않고 소주나 막걸리 정도만 드신다. 사치하지 않으시고 당신 학비를 대 주셨다~" 등등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깐 남편이 "당신 말을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도 훌륭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버님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자녀들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부모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

고 되면서 가문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주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주정을 자주 하시니깐 시어머님도 시아버님을 미워하셔서 집에서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님는 시아버님을 향해서 "요따이로 죽으려고 그따위로 살았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북에서 혼자 나와서 사신 분이라 아무래도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을 거란 마음을 갖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아버님을 긍휼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교회 출석 3년을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귀는 열려 있다고 들어서 계속 찬양을 들려드리고, 로마서 5,6,7,8장의 말씀을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으로 가실 거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얽혀있는 모든 것을 다 풀고 가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녀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의대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일주일을 보내면서 시동생이 정말 형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깐 그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임종 전에 온 가족들이 동시에 "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외쳤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니깐 충만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뿌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란 생각했습니다. 선조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대부분 엄마들인데, 엄마로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가문 안에 쓴 뿌리가 남게 되지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자리를 엄마의 세 치 혀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이들 중간에서 엄마가 잘 하면 그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지만 잘못하면 그 뿌리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면 가문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문에 어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변화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18살이 될 때, 이런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가친척이 없이 북한에서 피난을 와서 이 남한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이 거대한 인생의 바다에 던져졌을 거라고 생각해 봐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겠냐. 그래도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여기까지 잘 인도하셨단다. 저희 둘째가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에 할아버지가 18살에 혼자 남한에 내려오셔서 자리를 잡으셨다는 얘기를 해 주니깐 아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집안의 뿌리가 다치면 어떤 교육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를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내린 결

론은 "네가 죽어라! 네 의를 죽여라!"였는데, 내 자존심을 죽이니 모두가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고 여전이 자신이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고, 열심인 신앙인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두 자녀들도 잘 키우셨다고 하시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 아들은 이용래와 이익래입니다. 용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용할 자녀, 익래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될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큰 아이 용래는 모든 면에서 아주 빨라서 학습 능력도 좋고 쾌활하고 밝고 아이큐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둘째인 익래는 형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그 성향에 맞추어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 익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학교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보낸지라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깐 아이들에게도 놀림감이 되어 울고만 있는 거였습니다. 선생님도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교사인데 아이를 이렇게 놔두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익래가 학교에 다녀오면 오늘은 8번 울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학교 사표를 안내면 본인이 병원을 닫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사표를 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인데 익래가 예측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제 감정이 먼저 나가서 이러다가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익래를 키우기 위한 지혜의 말을 제 혀 안에 가득 넣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언제나 아이를 잘 키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받아쓰기를 20점을 받아 왔을 때에 제가 아이에게 에디슨 아저씨도 처음부터 잘 했으면 꿈과 희망을 주지 못했을 거야. 너도 잘 하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40점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뭘 잘하면 아빠와 같다고 늘 말해주어서 아이가 아빠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잘 하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익래가 받아쓰기 20점에서 40점을 받았으면 어떻게 100% 올라갈 수 있냐고! 하면서 자랑했고, 큰 경사가 난 듯이 알리고 파티도 열었습니다. 그러자 40점에서 80점이 되었

고, 나중에는 100점이 되었습니다.

익래가 교회에서 말씀을 뽑았는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20점 맞았다는 것은 네가 나중에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라고 해 주며 축복기도를 해 주면 익래도 "아싸!" 하고 응답했습니다. 익래의 아이큐 검사를 하니 90-110사이였습니다. 큰 아이는 140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150부터 천재인데, 너는 148이다. 2%는 노력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익내 천재! 왕 천재! 슈퍼 천재! 라고 매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중학교에 가서 아이큐 테스트를 하니 136이 나왔습니다.

익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워오라고 숙제를 내주며 내일까지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10번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울면서 10번 읽었는데 2*1=2, 2*2=4를 겨우 외웠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천재를 주셨습니다. 아빠는 천 번을 읽었는데 너는 10번 읽고 외우다니, 너는 천재야, 진짜라니까! 엄마는 너 만할 때에 1만 번은 읽었단다." 그러자 익래가 외우더라구요. 자기는 100번도 안 읽은 것 같은데, 구구단을 다 외웠다고 하네요. 익래는 초등 3학년 때 한글을 다 읽었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책도 사다보고 하면서 중학교 때까지 책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한쪽씩 읽어 주었습니다. 중학교 갈 때 반배치 고사를 안 보도록 했습니다. 언어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추가 배치로 되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을 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부한 것만 시험을 보니 예습, 복습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전교 4등을 했습니다. 남중에 12반에 있는데 반에서 1등하면서 전체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익래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공부를 잘 했는데, 수능 때에 두려움으로 인해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채근하여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보고 멀리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대학에 실패한 것은 네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베이직을 깔아 준거야, 네가 어렵고 힘들어 봤으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란다" 하면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계속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 익래는 의대를 다닙니다. 의대에서 좋은 믿음의 교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올 해 4학년인데 CMF 회장을 맡아 섬기며, 후배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10명을 교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큰 아이 용래는 아주 빠르고 학습 능력도 좋고 쾌활하고 재능도 많고 성격도 밝아 제가 욕심을 부리느라 윽박지르는 일을 많았습니다. 엄마로서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용래는 한동대를 졸업했는데, 저는 용래에게 "너는 일자리를 찾아다니지 말고 네가 일자리를 만들어라!" 했는데, 청년 창업을 해서 카본으로 기타를 만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구상해 내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계속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 아이들을 통해 하나씩 일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
=
교회의 하나됨

요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음 두 교회 중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첫번째,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탁월하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서울의 대형교회에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방을 하시던 중 수원으로 심방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사시는 골목으로 들어가시다 보니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 구함"이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방가셔서 그 집 딸을 보면서 "너 피아노를 잘 치니까 우리교회까지 오지 말고 그곳에 가서 반주하면 어떻겠니? 우리교회는 네가 오지 않아도 반주자가 많잖아"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오래도록 목회를 하시지 못하셨고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번째, 어떤 교회는 전국각지에서 주일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살찌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열성적인 교인이 많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골 이곳저곳에서 교사를 하던 청년들도 주일이 되면 자기가 가르



치던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와 관계없이 그 도시교회로 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가운데 한국교회가 가장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 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Holy Catholic Church' 로서 그 안에는 '교회의 거룩함' 과 '교회의 보편성' 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라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일에는 큰 관심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선언문도 "우리는 춘천성시화와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이 매우 힘들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강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연합이니, 성시화니, 세계선교니....하는 말들이 허공을 치는 말처럼 들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마지막시대가 되어가면서 성경의 말씀이 너무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인데 특히 자기를 사랑함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교회나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곧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어느 것이 교회에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일도 아이들 학원을 바꾸는 일보다 쉽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이런 이기적임이 곧 교회와 목회자들 간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계되어 여러 가지 연유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역에서 연합행사가 있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 교회의 집회를 포기하고 연합행사에 참여토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합행사를 위해 여러 교회를 거쳐 가는데 대부분 교회의 모임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즘엔 성도들도 교회의 모임을 포기하고 연합행사에 힘을 모으자고 하면 아예 이도저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은 연합행사에 힘을 모으지 않기에 목사님들도 과감히 교회모임을 포기하지 못하

는 모습도 봅니다. 또한 연합모임에 가보시면 누구나 "이것이 연합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연합사역에 사용하자고 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한 대형교회의 모임인원도 모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절망감은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스위스 보세이 인스티튜트에서 성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수잔 데 디트리히(Suzanne De Dietrich) 여사는 그의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대인은 웅성거리며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고독한 삶도 일찍이 없었다.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모두가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에 의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정신생활이 날로 공허해가고 있다. 오늘날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공동체'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다. 그러나 과연 공동체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치 않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사회에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그럼 어떻게 그 진정한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즉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17:23)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하나됨의 유언"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즉 앞으로 되어질 교회를 아시기에 하나됨을 그리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교회가 천국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연합의 능력일텐데 지금의 우리교회들은 회복 불가능할 만큼 멀리 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속히 한국교회는, 아니 춘천지역의 교회는 이 하나됨을 회복함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은 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글 피종호목사(나눔교회)





자궁경부암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올 7월부터 다른 선진국들처럼 만 12세 여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올해에 한해 만 13세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외로 백신접종을 하는 숫자가 많지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궁경부암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최근 SNS를 통해 이웃나라 일본의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사례(증명 혹은 인정되지 않은)들이 진실인양 퍼져가면서 이 백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현대의학과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가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부모들을 만나게 된다.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해주지 않으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의한 행동인 걸 알기에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20세기 들어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무참하게 깨어졌다.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한 불신들이 커져갔고, 백신이나 현대의학에 대한 생각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모론 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메스미디어의 발달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건들을 생생하게 접하게 만들었고 SNS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백신의 부작용이 마치 내 일처럼 피부에 와 닿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 현대 의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허**는 대표적인 대체의학신봉자이자 현대의학을 부정한 사람이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할 81가

지 이유"라는 책을 통해 유명해 졌고, 건강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불행히도 이 사람은 수개월 전 당뇨와 폐결핵 합병증으로 55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필자가 학생 때만 해도 당뇨약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소수의 당뇨 약으로도 환자를 80세 까지 건강히 살게 할 수 있다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다. 물론 지금은 새롭게 출시된 이전보다 좋은 당뇨 약들이 나오고 있으며 당뇨관리와 치료는 한결 쉬워졌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 또한 많이 올라갔다. 결핵은 일명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데, 영양도 좋아지고 결핵치료제도 있는 마당에 결핵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허**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다가 세상을 일찍 떠났다. 심지어 take care of(~ 돌보다)란 문장을 카레를 먹어야한다고 번역할 정도로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바르게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일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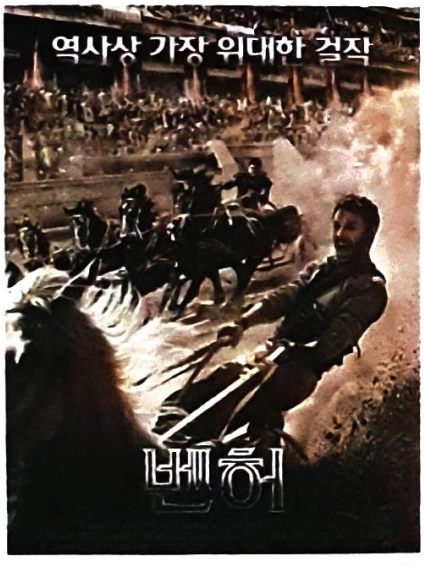
물론 백신의 부작용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망하는 일도 극소수지만 발생 한다. 그러나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백신을 바라봐야 한다. 특별히 선택이 아닌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라는 사업을 통해 무료로 행해지는 접종은 이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들이다.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한 바른 정보는 인터넷에 많이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선택한 근거들도 충분하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자궁경부암백신을 맞히는 것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 물론 자신의 신념에 의해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속아 접종을 하지 않을 수는 있다.

얼마 전 자궁경부암백신을 딸에게 맞혀도 되겠냐며 친구가 물어왔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접종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게니?"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전문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변에는 성경공부를 하자며 접근하는 이단들이 많다. 한번 들어나 보라면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며 우리를 유혹한다.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생각할 것도 없이 나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목회자들의 말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말세를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사태를 통해 이미 면역을 획득했다. 복음에 전문가가 있듯이 의학에도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를 신뢰하자.

글 고석연 원장(고석연건강의학과)

2016
벤 허



재작년 어느 언론의 기사에서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대작 기독교 영화들을 대거 제작 개봉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어 우리의 기대가 한껏 고무되었었다. 그리하여 〈노아〉, 〈선 오브 갓〉, 〈엑소더스〉 등의 작품들이 잇달아 나오게 된 모양이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과 자본력의 힘으로 배가된 감동과 은혜를 기대한 것부터가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잇달아 보여주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동이 기술과 자본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다.

'주여 과연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나이까?' 라고 시사회에서 외마디 신음을 뱉었다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벤허를 기억하는 독자들이라면 이 영화의 출현에 대해 다소 의아해 할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감동과 은혜로 만들어지고 아카데미 11개부문 수상이라는 전설의 이 대작을 '감히' 리메이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자못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더욱 기대를 갖지 못한 것이 감독과 기술과 자본력에 기대어 잔뜩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거금의 관람료를 지불하고 본 리들리 스콧의 엑소더스에 충격적 실망을 가진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벤허는 우려와는 달리 그리 치명적인 실망은 없이 무난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에 점수를 좀 줘도 되겠다 싶은 정도였다. 다만 출연배우들의 생소함에다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는 유명한 대배우 모건 프리먼에 대한 어색함이 조금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4시간 가까이 끌어가는 긴 분량의 전작의 약간 늘어지는 스토리에 비해 2시간10분짜리로 비교적 깔끔





하고 긴박감 유지에 겨우 성공을 거둔 것 같고 같이 관람한 H권사의 말마따나 2016년에 맞는 스타일리쉬한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다소 한 표 더 주어도 될 것 같다.

우선은 전작과 다른 점은 벤허와 메살라가 한 집안에서 자란 형제인데 여기서는 메살라가 입양되었다는 점, 빌라도를 행군길에서 경호하는 과정에서 전작에서는 벤허의 누이동생이 기와를 잘못 건들어 테러위협으로까지 비약시켜 체포하게 한 것인데 여기서는 벤허가 집안에 숨겨준 암살자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쓴다는 것, 해전에서 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결하려는 로마 사령관을 구한 바람에 로마에서 잠시 귀한 대접을 받아 고향을 가는 길에 전차경주를 위한 말과 경기배팅으로 돈을 버는 일데리암을 만나는 전작과 달리 홀로 바다에서 표류하여 해변에서 구조받은 후 조우하게 된 점, 늘 신비로운 뒷모습이나 그림자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전면적으로 등장하여 사역하고 십자가형을 받는 적극적 실재적인 모습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전차경주에 패한 후 엄청난 부상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 메살라의 전작과 달리 겨우 부상에서 회복하여 벤허와의 우정도 다시 찾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의 '새로운' 벤허에서 만나는 다른 점들이다.

어쨌거나 가슴 뭉클하고 벅찬 감동과 은혜를 안고 나온 윌리엄 와일러의 벤허보다는 다소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현대의 무시못할 기술력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전차경주장면이나 해전 등이 우리 세대에 맞는 감각으로 재구성된 것도 사실이다. 우정과 배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다룬 이 위대한 문학의 영화화는 이것으로 일단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러나 앞으로 나오게 될 대작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이 보다 더 은혜롭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접어둘 수밖에 없다. 그것은 참 슬픈 일이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반증이다.

글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협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⑦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 5시30분~7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한국국제기드온 춘천캠프

· 성서무상반포, 교회순방예배, 회원증모, 매주 조찬기도회 실시

춘천콜밴 010-8363-6925 지용근
공항예약 · 소형이사 · 행사준비 · 기업물류

강원도만찬기도회



9월 8일(월) 저녁7시에 동부교회에서 강원도청기독선교회, 강원도의회기독신우회 주관, 춘천시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후원으로 강원도만찬기도회가 있었다. 6시반부터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을 드린 후, 조인묵회장(강원도청기독선교회)의 사회로 기도회를 시작했다. 오원일회장(강원도의회신우회)의 대표기도, 김금분 도의원(강원도의회)의 성경봉독 후, 월드비전 강원지부 신우회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 날 설교에는 "소유에서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지도목사인 엄기홍 목사(그말씀교회)의 말씀선포가 있었고, 이어서 '강원도와 의회 발전을 위해'는 김기홍 도의원(강원도의회기독신우회),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는 윤창호 증경회장(강원도청기독선교회), '강원교육 백년대계를 위해'는 최기용 선교회장(가원도청도교육청신우회), '하나님 영광과 성시화를 위해'는 이인균 회장(춘천시기독교직장선교연합)의 인도로 특별기도가 있은 후, 광고에 이어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만찬기도회에는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모이는 모임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기획하여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80여명의 직장선교회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녁시간에도 함께 한 것에 감사하다고 김양수부회장(강원도청기독선교회)은 전했다. 강원도만찬기도회는 강원도정과 직장,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성시화운동의 현장이었다. 이 날 드려진 헌금은 강원CBS 방송선교헌금으로 전달되었다.

선교단체장과 대표간사 조찬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김창환이사장)에서는 이병철사무총장(주향교회)의 주관으로 9월 6일(화) 오전7시에 성시본부 회의실에서 선교단체장과 대표간사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은 2016 성시선교대회의 취지와 일정을 소개하고, 선교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는데, 성시주간(10/3~8)중 10월 7일(금) 저녁7시 블레싱 춘천시간에 선교단체들이 단체별로 준비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이사회 조찬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김창환이사장)에서는 이병철사무총장(주향교회)의 주관으로 9월 6일(화) 오전7시에 성시본부 회의실에서 선교단체장과 대표간사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은 2016 성시선교대회의 취



지와 일정을 소개하고, 선교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는데, 성시주간(10/3~8)중 10월 7일(금) 저녁7시 블레싱 춘천시간에 선교단체들이 단체별로 준비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시니어선교회 개강



시니어선교회(조은제 선교사)가 9월18일(주일) 오후3시에 동신교회(이병서 목사)에서 8주 과정(15시간)으로 개강했다. 시니어선교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은퇴 후에도 활동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 자원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다. 특별히 시니어들이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 또 자비량 선교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인 헬퍼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010-8377-5373 베드로선교센타이다.

신성감리교회 쌀 나누기 행사 9/10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는 올해에도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돕기 위한 제3회 "사랑의 쌀 나누기" 예배와 전달 행사를 가졌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모여진 쌀10kg 800포대가 춘천시(최동용 시장)에 전달되었다.

목회자 간담회



춘천내 교회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의 주제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며 협조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목회자 간담회가 9월 21일(수) 쟈스민에서 오찬으로 있었다. 김창환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이병철사무총장의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는 못했기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춘천교회 목사님들께는 프로그램 소개와 일정표를 문자

로 발송하여 전달하였다. 혹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못 받으신 목사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3-256-1260 사무국)

순복음춘천교회, 2군단 공병여단 안보특별 종교교육 실시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2군단 공병여단 안보특별 종교교육 강사로 9월 13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대를 순회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병영생활 속의 자아정체성 형성)"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각 부대 방문 시 부대와 지휘관, 모범 사병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해주고, 장병들에게 준비한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강연 시 특전사와 대통령 경호실 생활을 나누면서 특공무술을 보여주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 이 목사는 "군생활 21개월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귐과 독서를 해야 되고, 군생활을 하면서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 나와 환경, 나와 절대자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대,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대, 국가가 살아날 수도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절대자 앞에서 발견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는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 및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 부활절 계란 나누기, 사랑의 온차 보내기, 15사단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행사, 기하성 군종목사 간담회, 2군단 연합 찬양제, 7사단 군종병 신앙수련회, 15사단 MCF 조찬기도회, 군장병 문화활동, 문서보급, 장병위문활동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춘천직장인 정오예배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이인균회장)에는 춘천직장인 정오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낮12시에 동부교회 소예배실에서 갖는다. 9월 26일(화)에 드린 예배는 춘천시청 신우회가 주관하였고, 이정찬안수집사의 인도로 이상만권사의 대표기도, 김기윤전도사(원통 원대교회)의 "주시는 자 안에서"(빌4:11-13)란 제목의 말씀 선포 후, 주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했다.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지난 1990년 조직되었으며 산하에 40여개의 선교회를 두고 있다. 정오예배를 비롯해 선교대회, 찬양축제, 전도운동등을 통해 춘천의 모든 직장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정오예배에 참석하는 선교회가 늘어나도록, 정오예배가 춘천지역 직장선교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10월 예배주관 기관은 유니베라이다.

취재 이은정기자

제2회 2016 춘천 홀리바이크평화대행진은 평화의 도시 춘천을 염원하면서
자전거타기를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 됨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 2회

춘천홀리바이크 평화통일대행진



2016.10.8 토요일 오전 9시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 경기장 앞

일정 식전 행사, 자전거 타기, 식후 행사, 경품 추천 및 시상
(즐거운 포토상, 행복한 가족상, 코믹 우정상 등)

회비 **1만원**

주관 춘천홀리바이크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현철 김혜숙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옥 이은정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사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후원계좌 안내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KNU 강원대학교병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전인적 돌봄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치료 대상자

- ♥ 수술, 항암 및 방사선요법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
- ♥ 주치의가 완화의료적 치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 절차

입원환자 (담당의사와 상의)
↓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
↓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전산등록)
↓
입원 결정

외래 환자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특화된 서비스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조절, 기본간호, 목욕, 스트레칭 체조, 아로마 마사지

영적 돌봄
기도, 상담, 종교별 원목자 연결

사회 경제적 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상담 및 서비스 자원연계

심리 정서적 돌봄
원예, 미술, 다도, 가족교육, 영화상영, 음악회

상담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장 10절)

44주년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0.3월-10.8토
온누리교회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홀리클럽, 춘천장로연합회

협력기관
춘천교경협의회, 춘천시장로연합회, 춘천시감리교동부연회, 춘천시장로교연합회, 춘천시성결교연합회, 춘천시침례교연합회, 춘천시순복음연합회, 춘천시그리스도연합회, 춘천시구세군연합회, 성시합창단, 시모합창단, 성시무용단, CCC, JDM, 예수전도단, IVF, GBT, DFC, ESF, SFC, 인터콥, 에스컴, 어린이전도협회, 베드로선교센타,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강원도군선교회, 강원도청기독선교회, 강원도의회기독신우회, 춘천법원신우회,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 춘천기사선교회, 강원CBS,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춘천YWCA, 춘천YMCA, 월드비전, 남부사회복지관, 와이신협, 강원일보, 도민일보

춘천성시 · 매월 첫주 발행 · 211호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구독문의 033-256-1260